

1년 만에 열린 전국 수영대회 광주시체육회 백수연 건재 과시

여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 1위 광주체고 자유환 자유형 50m 대회신

광주시체육회 백수연이 1년만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건재를 과시했다. 백수연은 지난 13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개막한 제10회 김천전국수영대회 여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 1분10초0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백수연은 여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 세계선수권대회만 일곱 번이나 출전한 베테랑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선보였다. 백수연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영장 운영이 중단돼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같은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

회 이후 1년 만에 열린 전국수영대회이기도 하다. 광주체고 자유환(1년)은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m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22초46으로 고교 대회신 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단거리 스타인 양재훈(강원도청)은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에서 22초38에 레이스를 마쳐 3년 전 자신이 세운 대회 기록(22초78)을 갈아치우고 우승했다. 1년 만에 치르는 실전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한국 기록(22초26)에 0.12초 모자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 여자 일반부 자유형 50m에 나선 정소은(울산시청)도 25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정소은은 경기를 마친 뒤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잘 헤쳐나가고 싶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올림

픽 기준기록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남자 일반부 평영 100m에서는 조성재(제주시청)가 한국 기록(1분00초20)에 0.36초 뒤진 1분00초56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고 우승했다.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이호준(대구광역시청)이 3분53초29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일반부 데뷔 무대를 우승으로 장식하는 등 이날 11개의 대회 기록이 새로 쓰였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로 참가를 제한했으며, 경영 종목의 경우에는 예선과 결승 없이 한 차례의 타임레이스로 순위를 가리는 등 대회를 축소 운영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역영하는 백수연. <광주일보 자료사진>



인도 소녀들의 태권도 발차기 14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의 주도인 아메다바드에서 20km 떨어진 한 마을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힘차게 발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경기장 응원 열기 살아난다

문체부, 11월 중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 추진

다음 달엔 각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응원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4일 "11월 중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총 관중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10월 말까지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범위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중 입장 50%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관중 입장이 50%까지 늘어나면 각 프로스포츠 단체, 팀들은 운영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해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개막했고 7월 26일부터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8월 11일부터 30% 관중 입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8월 16일부터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왔다.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문체부는 14일 오후 프로스포츠 단체들과 관중 입장과 관련한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점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기장에서는 ▲입장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전 좌석 지정 좌석제 실시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중석 내 물과 음료 외 취식 금지 ▲육성 응원 자제 ▲좌석 간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세번째 CJ컵 출전 임성재 "올해 톱5 해야죠"

"스폰서 대회 좋은 성적 내고 싶어"

한국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스타 임성재(22)가 후원사가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이번엔 상위권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성재는 PGA 투어 더CJ컵(총상금 975만 달러) 개막을 앞두고 14일(한국시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은 이 대회에서 중위권 성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톱10, 톱5를 노려보고 싶다"고 밝혔다. 2017년 창설돼 지난해까지 세 차례 한국 제주 서귀포의 나인브릿지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 임성재는 두 차례 출전해 2018년 공동 41위, 지난해 공동 39위를 기록했다. 2018-2019시즌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으로 우뚝 서며 더CJ컵에 나설 때마다 주목받았던 것에 비하면 살짝 아쉬운 성적이었다. CJ 로고를 달고 PGA 투어를 누비는 임성재는 "올해 첫 우승을 했고, 두 번째 우승이 스폰서 대회 우승이라면 기쁨이 두 배로 클 것 같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더CJ컵은 한국이 아닌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인근 새도 크리크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린다. 임성재는 "연습하면서 코스가 정말 좋고,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린이 빠르고 경사가 심한 곳도 있어서 스피드 적응을 빨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연습라운드 경험을 살려서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역대 더CJ컵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였던 저스틴 토머스,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와 1·2라운드 한 조에 편성된 임성재는 "굉장히 강한 선수들을 만나 부담이 되지만, 유명한 선수들과 치머 많이 배울 좋은 기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회를 앞두고 코리안투어에서 활약하는 대학교 친구 김성현(22)과 연습라운드를 하고 다른 한국 선수들을 만나 기쁘다고 밝힌 임성재는 더 많은 한국 선수가 PGA 투어에 진출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친한 친구들과 형들이 앞으로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경험한 것 많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서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호날두도 못 피한 코로나

양성 판정 격리...더스틴 존슨도 확진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와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36·미국)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14일로 예정된 스웨덴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협회는 발표는 포르투갈이 11일 프랑스와 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경기(0-0무)를 치른 지 이틀만에 나왔다. 호날두는 프랑스전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협회는 호날두가 아무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언제 확진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페르난두 산투스 대표팀 감독에 따르면 그는 12일 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를 시작했으며 13일 재검사를 받았다. 격리에 들어간 호날두는 당분간 소속팀 유벤투스(이탈리아) 경기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메호대전'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유벤투스는 이달 28일과 12월 8일 리오넬 메시가 뛰는 FC 바르셀로나와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 호날두와 메시가 이 대회에서 만나는 것은 약 9년 6개월 만으로 많은 팬들의 이목이 쏠리지만, 호날두의 몸 상태와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첫 맞대결에서는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더스틴 존슨(36·미국)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성명을 통해 존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



호날두 더스틴 존슨

했다. 존슨은 PGA 투어의 2019-2020시즌 올해의 선수다. 존슨은 2019-2020시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과 노던 트러스트, 투어 챔피언십 등 3승을 거뒀고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챔피언에 등극했다. 존슨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인근 새도크리크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리는 2020-2021시즌 PGA 투어 더 CJ컵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에 따라 출전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리도 없이
2관	소리도 없이
3관	담보, 국제수사
4관	담보
5관	올랭이
6관	담보
9관	폰조, 나의 이름
7관 씨네커틀	안녕까지 30분, 애프터: 그 후 국장만 요과워차: 포에버 프렌즈
8관 씨네커틀	안녕까지 30분, 그린랜드 언한지드, 검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